

데스크 시국



박진현
문화·예향담당국장

“이게 뭐라고 ‘명대리머’ 계속 보고 있네.” 며칠 전, X(옛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사진과 글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사진을 클릭하자 파란 물 위에 수백여 개의 백자 접시가 부딪치며 떨어 거리는 소리를 내는 영상이었다. 분명 어느 전시회에서 관람객이 찍어 올린 것 같은데, ‘출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아쉬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며칠 전, 취재차 방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문제의 ‘사진’을 발견했다. 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2관에 설치된 프랑스 작가 셀레스트 부르시에 무주노의 ‘클리나넌’이었다. 미술의 언어로 아시아의 건축과 사회를 들여다본 기획전 ‘이음 지음’(1월8일-7월21일)의 출품작이다. 원형의 푸른 수조에서 180개의 백자그릇이 빛어내는 경쾌한 화음은 관람객들을 ‘몰방’에 빠지게 했다.

서울의 아이콘 된 ‘LG아트센터’

지난달 중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LG아트센터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 20년의 역삼동 시대를 접고 지난 2022년 10월 이곳으로 이전한 LG아트센터는 한낱인데도 건물 곳곳을 둘러보는 인파로 붐볐다.

그도 그럴것이 일본 출신의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지하 3층, 지상 4층(부지 3000평)의 건물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명품’이었다. ‘튜브’, ‘스텝 아트리아’,

은펜칼럼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오는 4일이면 세월호 참사 10주이다. 세월호 침몰 1년 전쯤 제주도 출장길이었다. 제주공항에서 세미나 장소인 서귀포 호텔까지 택시를 탔다. 당시 택시기가 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선상 불꽃놀이와 게임틀과 샤워실까지 완비한 국내 최대, 최고의 초호화 유람선이 인천과 제주를 오간다’라고 소개했다. 침몰 사고를 일으킨 정해진해운 소속 ‘세월호’ 이야기였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옆으로 기울다 이틀 뒤 완전히 침몰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방송만 믿고 기다리다 304명이 실종된 대형 참사였다. 배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과 2학년 학생 325명 중 250명이 희생되었다. 그 세월호는 이제 우리 사회의 부실과 부조리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당시 세월호는 오후 6시에 인천항을 출발해 다음 날 오

기 고



지연순
건축가·문화기획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땅의 도시, 땅의 건축’, 서울 시립미술관의 ‘80 도시현실’ 등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전시가 한창이던 지난해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의 ‘셋방살이와 내 집 마련: 춘천 주택 변천사’ 전에 협업 큐레이터로 참여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부터 1989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춘천의 주택 변천사를 다룬 전시는 ‘전후 복구와 집단 이주 주택’, ‘새마을운동과 주택’, ‘도시 주택의 변화’, ‘서민의 꿈, 아파트’ 등으로 구성됐다. 나는 5부 ‘집의 시간’을 맡아 우리 가족이 셋방살이했던 집, 아버지가 처음 구입한 공영주택,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집을 포함해 지인의 집 27곳의 건축 도면, 사진,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유년기를, 서울에서 청년기를 보내고 중년 이후 광주에서 살게 되었다. 세 개의 도시를 경험하면서 유년 시절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던 수많은 집들을 기록해야겠다는 결심이 고개를 든 것은 2016년에 논문을 준비하면서부터다.

2024 건축학 개론

‘게이트아크’라는 3가지 콘셉트로 디자인된 건축물은 예술과 자연, 인간이 어우러진 ‘꿈의 무대’였다.

여기에는 지난 2016년 고(故) 구분부 LG그룹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국민 문화향유를 위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기획된 공연장은 설계 단계부터 완공까지 무려 6년이 걸렸다. 당시 LG그룹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LA 윌트디즈니콘서트홀처럼 도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짓기 위해 다양한 설계안을 검토한 후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안도 다다오에게 총 2556억 원의 빅프로젝트를 의뢰했다.

새해벽두부터 광주 문화예술계가 떠어난 건축물 논쟁으로 뜨겁다. 지난해 말 광주시가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계작’이 비엔날레의 가치를 담은 참신성과 실험성이 부족해 재공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지역 원로미술인과 광주민예총, 광주민미협 등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설계 공모 기간이 턱없이 짧고 외국의 유명건축가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시일이 길리더라도 세계적 명성을 갖춘 건축가들을 지명공모해 설계를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라는 주제로 선정된 국내 건축사무소(4곳 컨소시움)의 설계안이 랜드마크는 고사하고 예술성과도 거리가 먼 ‘평범한’ 건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등에 따라 공모했다”면서 “지명공모에 소요될 예산이 부족하고 절차상 문제도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문화광주의 건축물에 대한 편협된 시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쓸쓸한 뒷맛을 남긴다. 유명 건축가 초청 공모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1182억 원이 투입되는 새 전시관 설계공모를 자유경쟁으로 ‘오픈’한 점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인 행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설계공모의 위상을 담보하는 심사위원 리스트에 권위있는 거장들이 포함

되지 않아 ‘무늬만 국제공모’라는 지적이다.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적임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문화도시들은 도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정체성과 콘셉트에 맞는 명망있는 건축가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인다.

건축, 랜드마크 넘어 도시 브랜드로

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1260억 원을 들여 서초구 옛 국군정보사령부에 국내 최초 미술관형 수장고를 건립하면서 건물의 ‘브랜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들을 대거 초청했다. ‘1도(鳥) 1뮤지엄’을 지향하고 있는 신안군은 ‘영혼의 건축가’로 불리는 마리오 보타에게 자은도에 들어서는 ‘인피니토 뮤지엄’(Infinito museum, 예산 150억 원)을 맡겼고, 부산시는 남구 용호동 이기대를 예술의 낙원으로 꾸미기 위해 프리츠커 수상자인 세지마 가즈요를 영입했다.

그런 점에서 광주에는 아직 선택지가 몇 개 남아 있다. 얼마전 타당성조사에 들어간 ‘오페라하우스’에서부터 옛 신양파크호텔에 조성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관광·문화·예술·쇼핑 등의 복합문화단지를 표방한 옛 일신·전남방직 부지 등이 그 예다.

모름지기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의 아이콘이자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문화자산이다. 더욱이 건물은 한번 짓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번 ‘비엔날레 전시관’ 처럼 당장의 ‘예산난’ 등에 갇혀 사고의 구대를 벗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색깔없는 건축물을 찍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미술관, 공연장 등은 대중의 삶과 밀접한 공공재이다. 창의적인 건축물은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무형의 가치가 훨씬 크다. 지금이야말로 지역의 미래를 그리는,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10주기 맞는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전 8시에 제주항에 도착할 수 있어 숙박비 절약 차원에서 수학여행 가는 학교가 많았다. 사고가 나던 날 오전 TV 화면을 통해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을 태운 선박이 좌초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계속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다가 정오쯤 ‘전원 구조’라는 속보가 뜨는 것을 보고는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허위 기사였다. 정부 발표를 받아 쓰기만 한 언론사들이 어이없고 가증스러웠다.

배가 심하게 기운 상태에서 천천히게 장난치던 아이들, 헬리콥터가 왔다가 곧 구조될 것이라 기대하던 아이들, 갑판으로 나왔다가 친구를 구하겠다고며 선실로 되돌아간 아이, 내 아이는 유명 브랜드 옷을 못 사줘서 옷차림으로 구별하지 못할 거라며 시신이 인양될 때마다 달려가 확인하던 어머니...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온 국민이 눈시울을 붉혔다.

세월호 사건 때 생존자의 절반 이상을 해양경찰보다 40여 분 늦게 도착한 어선이나 민간 선박이 구조했다는 보도였다. 이는 미국의 9·11테러 공격 때 무너져가는 건물에 뛰어내렸다가 목숨을 잃은 소방관 343명의 희생과 비교가 된다. 세월호 참사 때는 모르는 배안으로 다시 뛰어든 정규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민낯이다.

일곱 차례나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반복된 안내방송을 믿고 제자들과 사제 동행하며 선실을 떠나지 않은 교사, 선생님만 믿고 남았던 착한 아이들, 먼저 탈출해

버린 선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어린 학생들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재작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세월호 사건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모두가 국가의 책임이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피지도 못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가 죽을 수 있는가. 막막한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때, 이태원 비탈길 골목에서 뒤엉킨 젊은이들의 숨이 멎어갈 때, 국가는 없었다.

선진사회일수록 성장 못지않게 안전에 중점을 두어 필요한 비용을 일차적으로 내고 있다. 후진국들은 이런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사다리를 오르게 된다. 우리도 과거 많은 국민의 희생 위에 오늘의 성장을 기억하고 있다. 월남전에 32만 명이 파병되어 5000명이 넘는 꽃다운 생명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그렇게 역사의 강이 흘러와 오늘의 한국이 이뤄져 온 것이다.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의 위상은 선진국이 되었으나 국가 시스템은 아직 개발연대에 머물고 있다. 참사 유족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더 좋은 사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외쳤으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구도심으로 불리는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남동1번지, 동명동, 산수동, 대인동, 중흥동 일대의 빈집들과 지붕이 허물어져가는 도심형 기와집들, 웅장하게 수선된 채 쓰러져가는 집들을 볼 때마다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과는 멀어져가는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주인이 떠난 수많은 집들과 골목길 주변에서 도시의 흔적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만 커져 갔다.

여러 지역의 도시 생태계를 관찰하던 중, 10년 동안 빈집 상태로 방치돼 있던 남동 91번지 주민의 아카이브를 선보였던 ‘나의 살던 고향은: 송씨 할아버지댁’가 정방문 전시 프로젝트는 도심의 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주택의 기록을 담아보려고 시도한 첫 번째 공간 전시 기획이었다. 2017년 남동 91번지 두번째 전시인 ‘무인지대’(A Zone, No One) 손현주 작가 초대 사진전은 일본 나오시마의 집(家, ie)에 프로젝트를 방문한 이후에 기획했다. 안도 다다오의 기획아래 건축과 예술이 어우러져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보여주는 문화적인 시도가 인상 깊었다.

광주에서도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건축적 맥락의 전시가 필요하다면 절실한 마음에서 준비했다. 남동 91번지 주택은 2016년과 2017년 전시를 마무리한 이후 2018년 멸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도 그곳을 지나질 때마다 커다란 은행나무와 기와집, 그곳의 기억들을 나누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최근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오랜 시간 자연과 삶을 담아내었던 집들이 기록

로 남아있지 궁급해진다.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 표시가 된 거리를 지나치며 변화된 건축적 지층들을 사진으로 남겨보기도 하지만, 수많은 세월 속에 건축되고 사라져간 주택의 역사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온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현재도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을 볼 때 마다 시대적인 문화를 담았던 건축적 자산들을 그대로 철거해도 되는 것인지, 무차별적인 철거 이후 사라져버린 기억 속에서 도시의 역사적 근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사후약방문(死後藥房)이 될까 봐 조금만 마음이 앞선다.

춘천 전시 ‘집의 시간’을 위해 수집한 자료들을 되돌아보면서 전남에 위치한 광주의 주거문화 자료를 발굴하여 정리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보편적인 탐구를 통해 역사적 시공간 속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풍토와 자연 속에서 순응하거나 저항한 생활공간의 흔적들을 여과 없이 살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 풍경이 생생하게 묘사된 박완서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떠오른다. 넓은 마당이 있는 기와집, 언덕 위 작은 집 등 개성적 서울의 대비된 삶의 터전들. 우리를 기억 저편의 모습을 상상해보게 된다.

개별적인 희로애락과 경제발전이라는 공허 속에 가려진 동시대의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공간의 기록은 우리의 언어이며 자산이 될 것이다. 역사는 평범한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社說

광주 상무지구 ‘제2의 판교밸리’ 되려면

광주 상무지구에 경기도 성남의 판교 제2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하는 도심융합 특구 선도 사업이 본격화 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융합 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담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를 비롯해 5대 광역시가 대상으로 국토부는 4월까지 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상무지구 서면 85만㎡ 부지에 조성된다. 광주시는 2031년까지 지구 내에 6140억 원(추정)을 투입해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주거·산업·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가치 혁신창업 경제특구’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

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배후시설로 광주형 평생주택과 에너지파크, 광주대표 도서관 등 공공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인데 이미 평생주택과 도서관은 신축에 들어갔다.

도심융합특구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는 등 개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광주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산업·주거·문화·도시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로 기업과 인재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상무지구가 제2의 판교가 되려면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재를 모으려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가 우선이다.

신속하게 개발용지를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사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놓았다고는 하지만 땅값만 올리고 마는 개발사업의 하나로 남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장애인 배려 아쉬운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그제 광주시 남구 반다비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가 백운동 월산근린공원 부지에 완공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로, 복구에 이어 남구에 두 번째로 건립됐다. 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이며 수영장장과 체력 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반다비는 2018년 평창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반달곰 이름이다.

그런데 본보 기사가 휠체어 장애인과 동행해 점검을 해보니 체육센터는 정작 장애인을 입장에서 많은 점이 아쉬웠다. 우선 경사가 있는 월산 근린공원 부지에 자리해 접근성이 떨어졌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차를 타지 않고 혼자서 체육센터를 찾아 가기가 너무 어렵다.

체육센터내 시설들도 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지하 1층 헬스장에 23종의 헬스 기구가 있지만 모두 비장애인이용이었다. 장애인이 이를 사용하려면

좌석을 떼어내야 하는데 좌석을 탈착할 수 없는 헬스 기구들뿐이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헬스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지상 1층 수영장 샤워실내 장애인용 샤워기도 크게 부족했다. 20개의 샤워기 중 앉은 자세로 샤워할 수 있는 장애인용 샤워기는 1개에 불과했다. 시각 장애인인 센터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안내 촉지판 손잡이도 부족해 있지 않았다. 관람석 또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 관람석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휠체어 이동 공간도 없었다.

남구는 3월 반다비 체육센터 정식 개관에 앞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체육센터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라는 체육센터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장애인들이 체육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無等鼓

정치권이 ‘제3지대’ 통합론으로 들쭉거리고 있다. 오늘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신당 창당 후 ‘제3지대’ 연대를 통한 통합정당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제3지대’는 거대 여당과 야당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을 일컫는 말로, 제3세력을 지칭하는 정당들을 포괄하는 단어다. 거대 양당을 벗어난 이들 정치 세력의 연대가 향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는 정당에 의해 움직인다. 따라서 제3지대가 통합만 된다면, 중도층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국내 정치사에서 제3지대 성공은 몇 차례 있었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총 50석을 차지한 자유민주연합,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어낸 국민의당이 ‘제3당 돌풍’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제3당 돌풍’이 있은 뒤 얼마까지 않아 또 다시 당이 분당되는 사태를 맞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는 정치적 가치와 이익이 서로 맞지 않은 세력들이

제3지대

현재 제3지대에서 추진되는 신당은 이준석 위원장의 ‘개혁신당’,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가칭)’,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 중심의 ‘미래대연합’,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의원의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의 ‘한국희망’이 있다.

이들은 극에 달한 정치 양극화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할 대안 세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명분은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국내 정치가 ‘진보’와 ‘보수’로 갈린 특정 두 정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단순하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합집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추진중인 ‘제3지대 빅테트론’도 세력 간 공동 분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화학적 결합이 이뤄진다면 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엇갈리는 이해관계속에 공동 분포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성급함보다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는 결함이 이뤄졌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